

개방대비 품목대책 토론회

- 정부의견 및 품목단체별 제안 중심



- 주 관 : 전국농민단체협의회
- 협 조 : 농촌정보문화센터

1차 : 2007년 06월 18일 오후 1시 30분 축산

2차 : 2007년 06월 19일 오후 1시 30분 과수원에

-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6월 18일 농촌정보문화센터의 협조를 얻어 한국마사회에서 개방대비 품목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.
- 농단협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토론회는 먼저 농림부 축산국 이상길 국장이 축산품목에 대한 전체적인 발제를 내놓았다.
- 이 날 토론회는 좌장 정영일 교수의 진행아래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, 농수축산신문 최기수 편집국장,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최영찬 교수, 전 국회의원 이양희 의원, 농림부 축산정책과 민연태 과장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,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등 토론자들과 함께 회의가 이뤄졌다.
- 토론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가축분뇨 처리가 시급한 것과 소비자가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전 축산물로 확대하는 방안, 세제 지원, 맛 좋고 안전하며 싼 가격에 우리 축산물을 접할 수 있는 정책, 농어촌의 복지·교육환경 지원, HACCP 및 신기술 교육 등이었다.
- 자유토론시간에서 본회는 오리고기의 소비증가와 함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 제공과 수입 오리고기에 대한 유통실태 점검 등 정책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.

